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인사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입니다. 학생들의 분주한 발걸음과 웃음소리, 봄꽃보다도 먼저 찾아온 젊은 기운이 학교 전체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간호대학 15대 학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방경숙입니다. 11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학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저는 오늘의 우리대학이 있기까지 애쓰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국내와 국제 간호교육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으며, 졸업생들도 간호 교육, 연구, 실무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성과 수월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9년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우리 대학이 간호학 분야에서 34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본부의 지원과 최스미 전임학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수님들의 노고와 직원들의 협력, 그리고 동문님들과 학생들의 성원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서는 우리의 위치를 견고히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여 더욱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과 우리의 나아갈 바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학의 기본인 교육과정의 내실을 위해 이전부터 진행해온 교육과정 개편안을 이제 실행에 옮기고 사회의 요구에 맞게 대학원 과정도 정비해 나가려 합니다. 우리대학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실습교육 지원사업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6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내 실습환경 개선과 간호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 선도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 우리 대학이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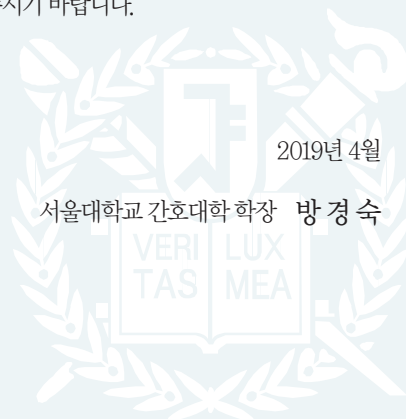
또한 우리 구성원들이 염원하고 있는, 간호대학의 '관악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처음으로 관악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관악캠퍼스에 강의실 하나밖에 가진 공간이 없지만 더 나은 교육 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가려 합니다. 관악캠퍼스에서 간호가 기여할 수 있는 일들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의 실현을 목표로, 시대를 앞서가는 간호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문적 수월성과 함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인간중심의 간호를 실천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미래간호 인재를 양성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세계와 함께 성장해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미래를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방 경 숙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학 장	최스미 교수 → 방경숙 교수 (2019. 1. 1.자)
교 무 부 학 장	정재원 교수 → 서은영 교수 (2019. 1. 1.자)
학 생 부 학 장	이남주 교수 → 채선미 교수 (2019. 1. 1.자)
학 과 장	윤주영 교수 → 최희승 교수 (2019. 1. 1.자)
승 진	장선주 교수 (조교수 → 부교수, 2019. 3. 1.자)
간호과학연구소	김혜원 간호과학연구소장 직무대리 (2019. 3. 1. ~ 2019. 8. 31.)
본 부 보 직	박현애 서울대학교 이사 (2019. 1. 25.자)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이인숙 교수 : 정년퇴임 기념 인터뷰

2019년 8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대학 이인숙 교수의 특집 인터뷰를 기획하였다. 지난 26년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느낀 소회와 제자들에게 전하고픈 이야기들을 들어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간호대학 재학 중인 최지성(4학년), 권영란(3학년), 서진희(2학년) 학생이 진행하였다.

이인숙 교수의 주요 약력은 다음과 같다.

○ 학력

- 1973 ~ 1977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사 졸업
- 1981 ~ 198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졸업
- 1984 ~ 1990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박사 졸업

○ 주요경력

- 2001 ~ 2004 보건간호사회장
- 2011 ~ 201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 2012 ~ 2013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장
- 2014 ~ 2016 서울대학교 평의원
- 2016 ~ 2017 한국간호과학회장
- 2014 ~ 현재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 2018 ~ 현재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비상임이사
- 1994 ~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 올해로 26년째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간호학자의 길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간호학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의 핵심이 간호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전공은 보건학을 선택하였는데, 연구자로서 현장에서 보건학, 의학적 지식을 적용하면서 강하게 든 생각이 바로 간호였습니다. 실제 인간의 삶속에서 건강을 해석하고, 이를 관리(돌보는)하는 직접서비스는 간호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는 시각과 기획 및 평가, 의학적 지식을 갖게 한다면 역량이 뛰어난 간호대 학생이 주된, 국민 그리고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여 사회의학연구소에서 간호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간호교육과 간호학자의 길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2. 교수님께서 국가 보건사업 발전에 매진하시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방문간호사업과 같은 지역사회보건사업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학부생시절부터 지역사회보건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송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매주, 그리고 년 1~2회 농촌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주민들의 삶을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왜 이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기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지요. 이후 연구자로서 지역사회보건사업을 행하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빈곤과 질병이 있어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며, 알아갈 기회와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 악순환하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장 활동가로서 그들과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에, 그 결과 최소한으로 버리지 말아야 할 역할이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방적 방문을 주장하고, 현장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교수님께서 연구를 해오시면서 국가 보건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발히 힘써오셨는데요. 2008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훈장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진행하셨던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시 주요 관심사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감사하게도 대통령 훈장까지 받게 되었지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이 결국 빈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문간호사업 등의 연구에 적극 몰두하였는데, 그 결과, 실제 현장 경험과 폭넓은 연구경력을 근거로 국가 자문위원을 맡아 지역사회 사업 개발과 평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 평가위원을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 의료계획 평가체계개발과 평가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모자보건,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방의료원 운영 및 보건소사업,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정책 등의 다양한 국가사업의 평가·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다시 나에게 돌아와 전국단위의 예방적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개발하게 되었고, 전국 및 지역단위 사업을 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성남시와 강남구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험·개발하고 검증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교수님께서 보건간호사회, 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을 지내시고,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 산림청 산림복지진흥원 비상임이사, 대한간호협회 이사를 역임하며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들도 활발히 해오셨는데요. 여러 단체의 리더 역할들을 맡아 오시면서 느끼셨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리더는 지혜와 열정, 추진력 모두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설득시키는 소통의 힘입니다. 늘 순간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판단되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 보건간호사회와 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간호과학회 회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이 모인 곳에서의 일의 추진과정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여 꼭 해야겠다고 열정을 갖고 일을 밀어 붙이면 독재적이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지요. 이런 측면에서 나 자신도 좋은 리더 역할을 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내에 성사 시키려고 강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추진하던 일은 대체로 이루어졌으나 무리수를 둔 순간이 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같이 일을 해준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의 있었으면 일의 성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일의 중요성 판단과 의사결정, 그리고 향후를 전망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에 대한 믿음과 적절한 일에 대한 위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5. 산림치유 연구와 관련 정책 제안, 산림치유지도사 2급 양성과정 운영 등 지역사회 자연환경을 활용한 중재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산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및 여러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해 오신 그간의 소감과 함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간 인간 삶의 환경은 간호학에서는 간과하고 있었던 영역으로, 산림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환경에 대한 연구와 중재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며 특히나 산림은 긍정적 요소가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여, 간호학이 개입하기 이전의 산림치유 영역의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간호학에서 산림치유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 후 산림청을 직접 찾아가 정책결정자들을 설득하였지요. 산림청으로부터 연구비를 받고, 연구를 시작하면서는 연구과정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문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여 타 학문 영역에서 간호연구/간호중재 영역을 수용하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간호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산림치유 영역에서 간호학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숲태교의 개발과 적용, 건강관리 영역에서 중재로서 산림치유를 수용하는 기전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반인에게도 간 호역량을 드러내어 간호의 사회적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6.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간호’란 무엇인가요? 앞으로 간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호는 간호학 지식을 넘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대학 후배들은 다분히 분석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의 간호학을 발전시켜왔으며, 발전의 경로를 단단히 하는데 주요한 초석이 되었지요. 이 과정에서 바라는 점은 간호학의 과학적 지식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이 노력의 과정 자체도 간호의 한 과정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 간호의 나눔은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본이 될 것입니다. 우선 간호학을 하고 있는 나를 충실히 돌보고, 나의 직분에 대한 충실함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간호학문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근본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7. 마지막으로 간호의 길을 먼저 걸어오신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을 믿으세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소중한 존재로서 지금의 위치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며,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노력하여 자신을 만드세요. 자존감을 지닌 개인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나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보려는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있으면서 나와, 내 주위와, 일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람의 정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실천이 간호현장에서, 내 삶에서 일어날 때 내가 지내는 오늘이 행복할 것입니다. 간호인은 매일을 행복하게 살려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세상을 보는 지혜, 따뜻한 마음을 갖춘 우리대학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간호대학 소식 02

연구실 탐방 서울대학교 간호경제정책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경제정책연구실은 김진현 교수님과 간호관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모인 연구실이다. 간호경제정책연구실의 관심 연구영역은 보건정책, 간호정책, 사회보험, 의료급여, 경제성 평가 등이다. 최근 수행된 연구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평가, 통합간호료 수가체계, 보훈요양병원과 보훈부속의원의 설립 타당성,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정책, 간호사의 교대제 개선방안 등이다. 현재 연구실에는 박사연구생 1명, 석박통합과정 2명의 연구원이 상근하면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호경제정책연구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5가지가 있다.

첫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표준모형, 수가체계, 비용·편익분석** 이 연구는 사회안전망 구축, 환자안전과 간호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표준모형과 적정수가체계를 개발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정책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둘째, 병원간호사 적정임금 가이드라인 개발

이 연구는 전국 병원 간호사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와 함께 국내 타직종 임금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병원 간호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간호사 임금의 지역적 격차와 의료기관종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한약분업 정책개발

이 연구는 한약제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한약제제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한방분업방안을 개발하는 연구이다.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에 적정 분업모형을 제시하여 한약제제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임상시험연구의 경제성 평가

이 연구는 현재 국가임상시험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자폐아동 치료법과 중풍환자 치료법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여 향후 건강보험 급

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이다.

다섯째, 의료인력의 수급 분석

이 연구는 의사인력과 간호사인력의 수급 실태를 분석하고, 중장기 수급 추계를 통해 향후 의료인력 수급정책의 근거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이다. 특히 간호사의 수급이 급변하는 최근 상황에서 중장기 수급정책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연구 이외에도 관리학교실모임, 연구실모임, 해외저명인사 초청행사 등 ‘간호관리’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작년 가을에는 일본 동경대 간호학과 Yukie 교수님을 초청하여 일본의 간호정책과 간호수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기 초에는 관리학교실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모임이 있고, 연말에는 연구실 재학생/졸업생 모임을 통해 함께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있다.



간호대학 소식 03

국제교류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국제교류 협약 현황

국	명	국외대학(기관)명
미	국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UIC), College of Nursing
미	국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미	국	University of Michigan, School of Nursing
미	국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Nursing
미	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Nursing
아랍에미레이트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일	본	Chiba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일	본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Medicine
중	국	Peking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홍	콩	The 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Nursing

간호대학 소식 04

2018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18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2014년도에 이어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 5년 인증을 획득했다. '5년 인증'은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된다는 판정으로, 인증평가 영역은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의료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본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중심의 교육체제를 통해 졸업학생이 학과가 설정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간호교육기관 운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이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계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대학은 앞으로도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간호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간호대학 소식 05

2018년도 종합실기시험

2018년 11월 16일 시뮬레이션 기반 종합실기시험이 샤인센터에서 시행되었다. 졸업예정자 67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 발휘를 위한 성취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간호대학 소속 교수 6명 및 대학원생 12명이 평가자 및 표준화 환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013년에 처음 시작된 종합실기시험은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 자격을 갖추게 된다. 6년차에 접어든 이번 시험에서는 '난소절제술 환자의 수술 후 간호',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청소년의 간호', '골절 환자의 통증 간호'의 총 3개의 모듈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각 모듈은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및 지역사회 간호학 간

통합적 교과과정을 반영하여, 모듈별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핵심기 본간호술기 1개와 난이도가 낮은 술기 1개를 조합하여 최종 개발된 것이다.

2018년에 시행된 종합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67명 중 53명이 1차 통과(합격률: 79.10%)하였으며, 11월 30일에 시행된 2차 평가를 통해 나머지 14명의 응시자들이 전원 통과하였다. 또한 평균점수는 30점 만점에 22.64점으로, 졸업예정자들이 시험을 통해 필수 임상술기능력을 함양하였으리라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06

201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캠프 개최

2018년 12월 22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간호학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호학캠프는 간호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간호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간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선발된 고등학생들은 최스미 前 학장의 환영사와 이남주 前 학생 부학장의 간호학 소개를 시작으로 캠프의 전반적 내용을 안내받았고, 10개조로 나뉘어 Ice-breaking과 조별활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사전 제출한 관심 분야에 따라 간호정보학(김정은 교수), 여성건강간호학(정재원 교수), 지역사회간호학(윤주영 교수), 간호관리학(이남주 교수), 성인간호학(고진강 교수) 특강에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학생들은 간호시물레이션과 간호대학 투어활동에 참여하였다. 시물레

이션 프로그램은 '기본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손씻기 및 보호장구착용', '활력징후 측정'의 간단한 간호 술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간호대학 투어활동은 숨은 핵심간호술 물품 찾기, 그림 릴레이 퀴즈, 근육주사 투여, 간호관련 퀴즈 등의 미션게임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간호대학에 특화된 실습실을 보며 큰 흥미를 보였다. 수료식에서는 하루 동안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소감을 나누며 학생들이 하루의 체험을 돌아보았으며, 수료증 배부와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캠프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캠프가 끝난 후 참여자들은 2018 간호학캠프에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앞으로도 간호학캠프 개최를 통해 간호학에 관심이 많은 고교생들이 간호학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간호대학 소식 07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18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 선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8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은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 및 실기교육 강화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병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간호대학 학생들에게는 시물레이션 교육을 통한 현장실무 역량 강화 기회를, 인근대학 교수진과 인근병원 간호 인력에게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 및 실습시설 이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대학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표준형 사업에 최대 6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간호대학은 시물레이션 센터 시설확충을 위한 공사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19년 5월 중순부터 간호대학 본관3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 증축과 더불어 통합적이고 연속선상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시물레이션 시나리오도 함께 개발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권의 간호대학 및 병원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간호대학생, 국공립병원 간호사, 간호 교수자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전반적인 실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 소식 08

제 59회 간호사 국가고시

2019년 1월 25일(금) 제 59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시행되었다. 이번 해에는 우리 대학 및 간호대학 동창회에서 준비한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간식, 담요 등의 선물과 간호대학 학생회 및 후배로 구성된 응원단의 격려 속에서 재학생 61명이 시험에 임하였다. 방경숙 간호대학장, 서은영 교무부학장, 채선미 학생부학장, 최희승 간호학과장과 최명선 前 행정실장은 시험 당일 우리 대학 응시생 대부분이 배정된 윤중중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독려함으로써 응시생들에게 힘을 더했다.

열렬한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제 5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98.4%의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간호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우리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밝은 미래와 활약을 기대해 본다.



간호대학 소식 09

동계 교수 WORKSHOP

2019년 동계 교수 워크숍이 1월 29일(화) 간호대학 본관 교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포함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하여 <1부>는 서은영 교무부학장의 사회로, <2부>는 채선미 학생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방경숙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학 같은 기업, 기업 같은 대학’을 주제로 한 강성춘 경영대학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 후에는 ‘간호대학 발전방안 모색’ 논의를 위한 첫 순서로 김혜원 기획위원장이 간호대학의 교육, 연구, 사회공

헌, 인프라에 대해 화두를 제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참여자들 간에 간호대학의 발전계획 및 성과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갔다. 또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위해 힘써온 송경자 겸임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부>에서는 서은영 교무부학장의 ‘관악캠퍼스 이전 추진경과보고 및 계획수립’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립을 위한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모았다.



간호대학 소식 10

제 73회 전기 학위수여식

제 73회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9년 2월 26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체육관(71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439명, 석사 1,750명, 박사 730명 등 총 4,919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간호대학은 학사 60명, 석사 16명, 박사 10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각 단과대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상은 김혜련(15학번)학생이 받았다.

이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서류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이 바라는 일, 원하는 일을 찾아 집중하기 바란다.”며 “주변을 둘러보고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신수정 서울대 총동창회장과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대표(미학과 97졸)가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19년 2월 27일 의생명연구원 가든뷰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있었다. 이번 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방경숙 학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에 서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또한 1학기부터 새로 시작할 간호대학 학생 실습과 관련하여 실습학생 머리망 착용 자율화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19학년도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다졌다.



간호대학 소식 12

2019 QS 세계대학평가 - 간호 부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34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 (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9 QS 세계대학평가 분야별 순위'에서 간호학 분야 국내 1위, 세계 34위로 높은 성적을 내었다.

이는 아시아 Top 5로 지난해 51~100위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2019 QS 평가는 총 4개의 평가 지표로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 논문당 인용 수, H-인덱스를 활용하여 순위를 산출한다. 이번에 우리 간호대학은 학계평가 74.7점, 졸업생 평판 82.8점, 논문당 인용수 85점, H-인덱스 81.1점으로 총점 80.5점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2009년 대학 자체 진행한 국제평가에서 세계 35위권 안에 드는 우수한 대학임을 평가받은바 있으며, 2015년부터 발표된 QS 세계대학 학문분야 평가에서 2018년까지는 51~100위권에 자리해왔다. 간호대학이 이번 2019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34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바로 간호대학의 활발한 양질의 연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성인, 모성, 아동, 정신, 지역사회, 간호정보, 간호관리 분야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연구실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Nursing		
QS World University Ranking by Subject 2019		
Ranking 2019	University	Location
1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ted States
2	King's College London	United Kingdom
3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United Kingdom
4	Johns Hopkins University	United States
5	University of Southampton	United Kingdom
34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51-100	Kyung Hee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간호대학 소식 13

관악캠퍼스 우정원 - 간호대학 강의실 오픈 기념식

2019년 3월 4일,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의 관악캠퍼스 수업을 위한 강의실이 오픈했다. 방경숙 학장, 서은영 교무부학장, 채선미 학생부학장, 최희승 학과장은 우정원 강의실 오픈을 기념하여 2학년 학생에게 떡을 전달하였으며, 교직원 및 학생들은 다함께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강의실 오픈을 축하하였다.



<간호대학 강의실, 509호>

우정원 글로벌사회공헌센터 5층에 자리 잡은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전용 공간은 간호대학 강의실(509호), 간호대학 세미나실(509-1호), 간호대학 교수 연구실(510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2019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로 2학년 전공수업은 관악캠퍼스 우정원 간호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대학 세미나실, 509-1호>

간호대학 소식 14

나이팅게일 선서식

2019년 3월 5일(화), 간호대학 3학년 73명 학생들을 격려하는 제 59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거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란 간호대학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촛불을 점화하고 선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이 축사를 전하였다. 더불어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병원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임난영 회장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이 외에도 홍기현 교육부총장, 노동영 연구부총장, 신석민 교무처장, 성제경 교무부처장, 김성규 입학본부장, 박연환 입학본부 부본부장, 서이중 중앙도서관장이 참석하였고, 성명훈 SKSH 병원장, 허성주 치과병원장, 백승학 치과병원 진료처장, 조정숙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을 비롯한 병원 내빈과 의과대학 소속의 신찬수 의과대학장, 강현재 의과대학 기획부학장, 치의학대학원 소속의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 이성중 치의학대학원 연구부원장, 박영식 치의학대학원 연구부원장, 설양조 치의학대학원 교무부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선서식 중 피아노 연주를 맡은 2학년 이진아 학생, 교가를 선창한 4학년 고은희 학생, 촛불을 전달한 4학년 신희수, 최지성, 이한별, 오승주 학생과 함께 본교 교수 및 학부모, 동문 선·후배들이 참석하여 3학년 학생들을 축하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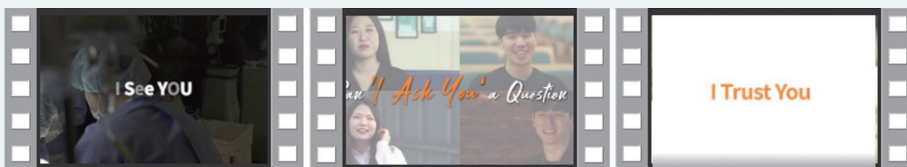


간호대학 소식 15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홍보영상

우리대학은 간호대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내·외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겨울동안 홍보영상 제작을 진행하였다. 기존 홍보영상의 접근성 하락으로 인하여 보다 차별화된 영상 제작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단순한 정보제공 목적의 영상이 아닌 우리대학의 고유성 및 특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제작한 홍보영상은 총 3편으로, 1편(I See You)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소개하는 이미지 중심

의 영상이며, 2편(I Ask You)은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 홍보영상, 3편(I Trust You)은 간호대학 입시홍보영상이다. 제작된 홍보영상은 제작 목적 및 시청대상에 따라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따로-또 같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의 제목을 통해 홍보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Key-Concept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홍보영상은 간호대학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간호대학 소식 16

환경개선

○ 연구동 현관 로비 환경개선공사

- 일시 : 2018. 07. 01. ~ 09. 03
- 내용
 - 현관 자동문 설치공사
 - 로비 라운지 설치공사
 - 1층 바닥재 교체 및 벽체 도장
 - 전등·전열 전기공사
 - 현관 석재공사

○ 학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

- 주관기관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점 검 일 : 2018. 9. 17.(월) 14:00~15:00
- 대상(간호대학) : 본관/연구동/기숙사 내 화장실 등 총 25곳
 - 화장실(20개), 수유실(1개), 샤워실(1개) 및 탈의실(3개)
- 점검내용 : 여성보안관 25명 합동점검, 시설담당 동행, 학생 참관
- 점검결과 : 이상 없음

〈간호대학 서무 이익규〉

간호대학 소식 17

직원동정

○ 행정실장 김지훈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8일부터 간호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장 김지훈입니다.

간호대학 행정실은 여러분을 위하여 열려있는 공간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연구와 교육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의 모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앞으로 보다 우수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하는 행정실을 만들겠습니다.



○ 교학행정실 담당관 이은주

안녕하세요, 간호대학 교학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주입니다.

연건캠퍼스 근무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시는 간호대학에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학행정실에 근무하고 계시는 유수임 선생님, 고준호 선생님 두분과 함께 교무, 학사, 학생 관련 지원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학행정실 주무관 유수임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25일부터 간호대학 교학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수임입니다. 교무, 학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사 행정에 불편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실

- 교학행정실 담당관 이은주 (2019. 1. 1 발령)
- 간호대학 행정실장 김지훈 (2019. 2. 18 발령)
- 교학행정실 주무관 유수임 (2019. 2. 25 발령)

○ 부속실

- 〈2019. 2. 28 임용〉
- 임동현

○ Shine Center

- 〈2019. 3. 1 임용〉
- 안정희 사무국장 (11년졸)

○ 시설관리반

- 〈2018. 11. 16 임용〉
- 청소 남홍란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지난 2018년 겨울,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

날짜	주제	강사
11월 08일 (목)	Symptom Management Research In the Age of Genomics	Kathleen McCormick (PhD, RN, FACMI, FAAN, FHIMSS, HIMSS, SciMind LLC)
12월 05일 (수)	Natural environment and wellbeing	Prof. Kalevi Korpela (Environmental psychology, University of Tampere, Finland)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2018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제 12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유전체학 연구동향과 간호에 적용(Integration of genomics into nursing and lifestyle care)”라는 주제로 제 12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12회 국제학술대회 “Integration of genomics into nursing and lifestyle care” 일정

- 일시 :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10: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연구동 2층 강당
(서울 중로구 대학로 103)
- 주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2018년 11월 09일 국제학술대회 오프닝〉

내용	발표자
Nursing's role in genomics and precision health to improve quality outcomes	Kathleen McCormick PhD, RN, FACMI, FAAN, FHIMSS, HIMSS, SciMind LLC
The future of health checkup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tic testing	Eun Kyung Choe MD, SNU, Hospital Healthcare System Gangnam Center
New strategies for epigenomic studies	Hyangkyu Lee PhD, RN, Yonsei University
Epigenetic origins of health and diseases	Takeshi Saito PhD, Dean Hokkaido university Faculty of Health Science
Including telomere length and telomerase activity in outcome evaluation of lifestyle interventions	Denise Cheung PhD, RN, University of Hong Kong
Epidemiology with high-throughput epigenome data	Iksoo Huh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Application of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Sung Soo Kim PhD, Division of Epidemiology & Health Index, Korea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KCDC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2018년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대학원생의 간호학문 탐구를 지원하고 연구능력 향상을 돕기 위하여 2018년 5월 대학원생 학술모임 지원 사업에서 5개의 학술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 학술 팀의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결과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 2018년 대학원생 학술모임 발표회 일정 및 선정팀

- 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 12:00~13: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08호

NO	전공	구성원	학술모임명
1	정보, 모성, 관리	장선미 외 3인	간호사 근무복의 identity
2	정신	김잔디 외 5인	'진짜 삶' 속으로 들어가다 -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 모임
3	정보	유형주 외 3인	NaoRobot을 이용한 간호 보조 프로그램 개발
4	모성	강유정 외 3인	최근 5년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분석을 통하여 본 여성건강 연구 동향
5	아동	정예슬 외 4인	아동학대 연구모임 :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검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검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무연구원 연구 동향 세미나 일정

날짜	주제	강사
11월 28일 (수)	Association Study of 60 Candidate Genes with Antipsychotic-induced Weight Gain in Schizophrenia Patients “조현병 환자군에서 항정신병 약물의 투여로 일어나는 체중 증가와 60개 후보 유전자들의 연관 연구”	허익수 교수
12월 05일 (수)	Self-care in heart failure “심부전 환자의 자가간호”	이경숙 교수
12월 12일 (수)	Understanding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ment Information System (PROMIS)	최희승 교수



〈연구동향세미나 허익수 교수〉



〈연구동향세미나 이경숙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2018학년도 겨울 방학 특강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학년도 겨울방학 특강 일정

- 일시 : 2019년 01월 23일 (수) 13: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08호

주제	연자
IRB 연구 윤리교육 : IRB 심의의뢰서 작성법 교육	김시형 IRB 행정간사 (서울대학교 연구윤리팀)
학위논문 작성법 : 논리적인 글쓰기란?	박정희 연구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교실)



〈겨울방학 특강-김시형 IRB 행정간사 특강〉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오늘날의 생의 끝자락과 죽음에 대한 질문들-노화, 의료화, 윤리 그리고 돌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미나 일정

-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 13:00~18:00, 1월 22일 (화) 13:00~18:00
- 장소 : 간호대학 본관 518호
- 주제 : 오늘날의 생의 끝자락과 죽음에 대한 질문들-노화, 의료화, 윤리 그리고 돌봄
- 진행자 : 김성재(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송병기(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인류학)

일정	주제
2019년 01월 15일(화) 13:00~18:00	첫 번째 질문. 왜 생의 끝자락과 죽음은 '문제' 가 되었나?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우리는 '환자' 가 되는가?
	토론
2019년 01월 22일(화) 13:00~18:00	세 번째 질문. 의료윤리는 윤리적인가?
	네 번째 질문. 다시, 돌봄이란 무엇인가?
	토론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7

워크숍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워크숍 일정

- 일시 : 2019년 2월 12일 (화) 10:00~18:3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08호

주제	연자
들어가며: 간호실무	전경자(순천향대학교 교수)
간호의 대상자	김성재(서울대학교 교수)
간호실무에 대한 관점	전경자(순천향대학교 교수)
실무를 위한 간호지식	권인각(성균관대학교 교수)
간호실무의 세가지 철학	김형숙(순천향대학교 교수)
간호실무의 다섯가지 차원	은영(경상대학교 교수)
간호실무 과정	은영
간호실무의 필수도구	김성재
협력적 실무	김형숙
간호실무에서의 지식 적용	권인각
간호실무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간호실무의 질	전경자
나오며: 간호실무의 미래	김성재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8

2019년 1학기 수요학술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19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1학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19년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순서	날짜	강사 (소속)	주제
1	03월 20일	김정수 조교수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Return of the genome project
2	04월 03일	최성경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Statistical challenges in the pharmacogenetic analysis using next-generation sequencing data
3	04월 17일	김수현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공간 컴퓨팅 연구실)	R을 이용한 임상 연구
4	05월 01일	이성영 연구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정밀의료센터)	Integration of biological pathway and omics dataset
5	05월 15일	이수현 교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의학교실)	Using EMR Data for Clinical Research Informatics

학부 소식 01

제28대 학생회 이야기

1. 2019학년도 신입생 환영회

2019년 1월 16일, 수시모집에 합격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서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팀게임 및 미션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를 처음 보는 자리였기 때문에 다소 어색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뒤풀이를 이어가며 서로를 알아가고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국가고시 응원사업

2019년 1월 25일, 4학년 선배들의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었습니다. 간호대학 학생회에서는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선배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간식과 점심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간호대학 행정실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동창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들이 의기투합하여 응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장님과 부학장님, 학과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실 직원 분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4학년 선배님들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간호대학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3. 새내기 새로배움터

2019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새롭게 입학한 19학번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수강신청, 학교생활의 내용을 담은 재학생 강연, 인권 및 성평등 교육, 환경 안전교육, 교수님의 특강 등 여러 유익한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스브레이킹, 체육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새터를 만들어준 신 새내기 새로배움터 준비 위원회 분들과 새터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간호대학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4. 19번개모임

지난 2월 21일에는 19학번 번개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시 신입생 환영회나 새내기 새로배움터 행사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선배들은 신입생들에게 수강신청, 대학생활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대학교 생활이 막막했던 신입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5. 개강총회

3월 7일, 새로운 학기를 맞아 간호대학 학생들이 모여 개강을 축하하는 개강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만장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의 상품으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개인 물품을 기부해주셔서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6.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NM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 대외활동, 동아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주기위해 매년 간호대학 멘토링 프로그램(NM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 선배 한명과 신입생 멘티 1~2명을 짝지어 조별로 각자의 활동을 계획하고 기록하며 선배와 후배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들은 후배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 학기 초이지만, 벌써 여러 조들이 다양한 활동을 완료하여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은 물론, 선후배 사이의 돈독한 정을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학부 소식 02

동아리 탐방 - CASA 의대간호대 카톨릭 의료봉사 동아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가톨릭 학생회 (CaSA)' 입니다. 1958년 창단되어 지금까지 55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가 깊은 동아리이며, 현재 재학생 8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SA의 주된 활동은 종교활동과 의료봉사활동입니다. 전례부의 주관 하에 매학기 개강미사와 종강미사를 진행하며, 매달 점심전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동아리에 들어오실 수 있고, 신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매년 2학기에 열리는 '예비자교리'를 들으시면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SA를 봉사동아리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만큼 저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격주 일요일마다 '라파엘 클리닉'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라파엘 클리닉은 199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교수회가 주축이 되어 CaSA와 함께 시작한 국내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입니다. CaSA는 예진·약국·진단검사·PA등 다양한 파트를 맡고 있으며, 1학기에 2회 이상 자신이 가고 싶은 날짜와 파트를 신청하여 활동합니다. 집행부(간호대학 기준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를 하는 1년 동안에는 한 파트를 맡아 2주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며, 각 파트를 총괄하고 후배들에게 봉사내용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7월에는 5박 6일 간 의료소외지역을 방문하여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여름진료'가 열립니다. 장소는 4-5년마다 바뀌며, 올해부터는 충청남도 단양에서 봉사를 진행합니다. 여름진료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CaSA,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함께

하는 CaSA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료 전날 지역사회 활동을 하며 진료를 홍보하고 혈압 및 혈당 측정, 문진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예진, 접수, 진료 PA, 약국 등의 파트를 돌아가며 봉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함께 MT를 가 동아리 원끼리의 친목을 다지게 됩니다.

매년 1월에는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필리핀 마닐라의 'Sisters of Mary school'에서 5박 6일 간 동계의료캠프를 진행합니다. 크게 진료 PA, 예진, 교육팀으로 나누어지며, 교육팀을 맡은 학생들은 보건교육을 직접 기획하게 됩니다. 캠프를 하는 동안에는 진료PA, 예진, 교육, 약국팀으로 나누어져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홈커밍데이, 총회, 졸업생송년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가톨릭을 알고 싶으신 분들, 의료봉사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CaSA는 여러분의 따뜻한 연진 생활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① - '동화로 다문화 Do Dream!' 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간호대학 16학번 김희원

‘동화로 다문화 Do Dream!’은 글로벌 사회 공헌단에서 제작된 진 행되었던 겨울동화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화로 다문화 Do Dream!’은 본교 재학생들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님들 이 협력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하 는 프로그램이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책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 로 수출하고, 학생들이 아동 관련 기관에 나가 동화구연 공연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판하게 된 ‘북극곰이 파래요’는 북극곰 마을에서 파란색 으로 태어나 파들립 당했던 곰이 마을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파란 곰은 긴 여행 끝에 무지개를 만드는 무지개 마을에 도착한다. 그곳의 동물들은 파란 털의 북극곰처럼 저마다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무지개 마을에서 북극곰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행복해진다. 본교의 학생이 창작한 ‘북극곰이 파래요’는 한국 사회에 섞여 사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도 동화의 구조를 잘 따라간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요즘 어느 학교에서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왔음에도 아직까 지 그 아이들에게 암암리에 불편한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 어린 행동이 부끄러운 일임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어울리는 또래 들이 ‘북극곰이 파래요’를 읽고 파란 곰의 여행을 따라가며 지금껏 가져왔던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나위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이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차고 기뻐다.

‘동화로 다문화 Do Dream!’은 좋은 취지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협력, 높은 수준의 성과물로 여러 기관들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분기별로 후속 프로그램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관련 분야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우라면 기회를 노려 한 번 지원해보는 것이 어떨까?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② - 서울시 사회공헌 NGO 드림컨설턴트



간호대학 17학번 나현아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이 꿈을 찾는 그 날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공헌 NGO 드림컨설턴트 17기로 활동하고 있는 나현아입니다. 드림컨설턴트는 2010년 서울대학교 교내 봉사 단체로 설립된 이후 2012년에는 서울시 사회공헌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었는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꿈”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멘토링 교육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주요 프로그램은 하계/동계 방학동안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단을 이끌고 전국 각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드림캠프”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캠프는 드림컨설턴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매 캠프마다 이들을 보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캠프를 진행할 학교에 컨택하고 캠프에 참여할 멘토들을 선발하며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캠프를 진행하기까지. 드림컨설턴트의 업무는 캠프가 끝난 후까지도 계속됩니다. 캠프 후 피드백을 통해 다음 캠프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학기 중과 방학동안 진행되는데다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해내고 있는 드림컨설턴트들. 정말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드림컨설턴트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간단합니다. 2학년이 되고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공부밖에 접할 수 없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찰나에, 우연히 드림컨설턴트 모집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떨쳐 지원하였고, 운 좋게도 드림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회의를 위해 관악을 오고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였지만 후회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장래희망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변해왔지만, 지금 돌아해보면, 과연 제 꿈이 있었던 순간은 얼마나 될까하는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입시라는 체계 아래서 일종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성인이 된 지금 제게 꿈이 없다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뒤쳐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이런 제가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려 애쓰는 것이 모순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드림컨설턴트 활동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캠프를 통해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통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드림컨설턴트 활동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제게도 성장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꿈은 멀기도 하며 가깝기도 합니다. 그러한 꿈을 찾는 과정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무도 정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향할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함께 걸어가 줄 수는 있겠지요. 드림컨설턴트 활동을 통해 찾은 제 꿈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노인인지, 아이인지, 환자인지, 학생인지, 혹은 사회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뜻하는 바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보고자 합니다. 드림컨설턴트는 제게 그 한 발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신의 길을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학부 소식 04

학부생 수상내역

수상 실적	수여자 이름
2018 SNU 스마트 사회공헌 경진대회 장려상	홍민정, 신루희, 장수연, 배현지 (SNURSING 팀)
2018 서울대학교 사회봉사활동체험수기 최우수상	신루희
2018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핵심기본간호술 시범 재학생 공로상	김혜련, 조은별, 이아라
2019학년도 전기 졸업포상	수여자 이름
최우수상	김혜련
총동창회장상	임정현
간호대학장상	심상솔
공로상	신수빈
서울대병원장상	신루희
간호대동창회장상	주나영
한국간호과학회장상	김지영
대한간호협회장상	박지은
한국간호대학(과)장 협의회장상	조은별
미래국제간호인재상	차혜진

대학원 소식 01

201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간호대학 제 2연구동 강당에서 2019학년도 간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입생들은 각 전공별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원생으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연구방향,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9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은 석사과정 39명, 석·박 통합과정 18명, 박사과정 14명으로 총 71명이다.

과정	성인간호학	모아 ·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 · 간호시스템
석사 (39명)	성인간호학 21명	모성간호학 3명 아동간호학 3명 정신간호학 4명	지역사회간호학 1명 간호관리학 6명 간호정보학 1명
석·박통합 (18명)	성인간호학 3명	아동간호학 2명 정신간호학 3명	지역사회간호학 2명 간호관리학 6명 간호정보학 2명
박사 (14명)	성인간호학 6명	아동간호학 2명 정신간호학 3명	지역사회간호학 1명 간호관리학 1명 간호정보학 1명

대학원 소식 02

2019 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6명)

최지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사회적 시차와 심혈관대사 위험 요인의 연관성 연구
안현진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여성생식기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가족지지 및 극복력의 상관성
김슬아	대장암환자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부담감, 부부 친밀감과 성생활 정보요구도
김현정	소아병동 간호사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 경험
박열매	비침습적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의 경험
강유정	고위험 임신 여부에 따른 초산모의 모성역할 자신감, 모유수유 태도 및 수유 양상
진희경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전실하는 간 이식 수혜자 가족구성원의 전실 스트레스와 가족부담감
황민화	일개 도시 거주 노인의 운동행위 변화와 관련 요인: 코호트 자료 이차분석
파 라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Indonesian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피르마	Evaluating the Usability of Mobile JKN, the Indonesian App for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Using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류현주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해능력(e-Health Literacy)과 건강행위와의 상관성
신미정	사단급 이하 의무시설 근무자의 감염관리 표준주의지침에 대한 지식, 태도와 수행도
정소운	아동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법의 관계
유아름	중환자실 간호사의 간호역량과 전문직 삶의 질의 관계
이선민	중환자실 간호사의 생애말환자 간호 역량과 수행빈도
박은영	아동간호사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식, 인식과 임종간호 스트레스

간호학 박사(9명)

한슬기	간호사를 위한 일의 의미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 로고테라피 기반으로 -
이지혜	여고생을 위한 학교기반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황인주	학령전기 아동의 비만예방행동 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여지영	암경험 청소년과 돌봄의 동반자관계를 통한 실천연구 - Newman의 간호이론을 기반으로 -
강경림	회복중인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마음챙김명상 프로그램의 효과
정재원	조현병이 있는 청년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백지현	교대근무 간호사의 수면과 직무 스트레스, 월경 전 증상의 관련성
심주희	지역사회 거주 인지기능 저하 대상자를 위한 다영역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유혜진	심장이식 수혜자의 자가간호 건강일지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적용

대학원 소식 03

수상실적 및 연구지원금

연구지원금	수여자 이름	전공
이창국퀴어연구지원기금 (비온뒤무지개재단)	김씨래	성인간호학
2019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 세대 지원사업/박사과정 수학지원(B)	유형주	간호정보학
수상 실적	수여자 이름	전공
No Pain for Children Young Researchers' Award, the First Prize, 2018	김초희	아동간호학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ncer Nursing(ICCN) 2018 Research Poster Award 2nd Place, 우수 포스터상	박열매	성인간호학
한국시그마학회장상	박열매	성인간호학
한국아동간호학회 우수 논문 선정 제목: 미숙아의 12개월, 24개월 발달 영향 요인에 대한 전향적 연구	방정숙, 강현주	아동간호학

대학원 소식 04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9년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가천대학교	최승혜	성인간호학
동국대학교	강경림	간호학
부천대학교	강지영	기초간호학, 시뮬레이션
세명대학교	정재원	간호학
청운대학교	강경화	간호학
한양대학교	이지혜	아동간호학



대학원 소식 05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The 2 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SAI 2018, shenzhen, china)	
Comparison of Human-Robot Interaction of Robot for Children's Hospital Life Adaptation (구두발표)	유형주, 이형숙, 홍영주
The 4 th Global gathering – Maruzza Congress on Pediatric Palliative Care	
Pediatric Deaths Attributed to Life-Limiting Condi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Exploring the Need for Nationwide Pediatric Palliative Care (구두발표)	김초희
The 4 th Pacific Symposium for Nursing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SNAHP 2018)	
Perceived Stress and Stress Respons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포스터 발표)	송민경, 정예슬
The 12 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fer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 Study on a Usability test of Serious Game Robot App (포스터 발표)	김미령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HPV vaccination: A comparison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포스터 발표)	김혜원, 이은주, 이영진, 강샘이, 김서연
The 22 nd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EAFONS) Conference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ived control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포스터발표)	이형숙
Relationships between Sleep, Occupational Stress and Premenstrual Symptoms of Shift Work Nurses (포스터발표)	백지현, 류재금, 송경자, 한기혜, 전보민, 최스미
Literature review on postoperative delirium in geriatric patients after elective gastrointestinal cancer surgery (포스터발표)	박다인, 최스미
Evaluation of Poststroke Sleep Disorders: An integrative Review (포스터발표)	박다인, 최스미
Association of Sleep Disturbance, Fatigue, Job Stress and Exposure to Blood and Body Fluid in Shift-Work Nurses (포스터발표)	류재금, 백지현, 김경숙, 기지선, 김해림, 유민정, 최스미
Caregiver Burden, Marital Intimacy and Sexuality Information Needs according to Spouses' Gender among Patients with Colorectal Cancer (포스터 발표)	김슬아, 서은영
A Qualitative Study on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of using an Interactive Nursing Skills Mobile Application (포스터 발표)	김현선, 서은영

대학원 소식 06

대학원생 이야기 ① -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29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을 다녀와서

성인간호학 박사수료생 윤영희

먼저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해주신 시그마학회 한국지부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29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를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멜버른은 한국의 강렬한 무더위가 낫설어지는 초겨울 날씨의 감성적인 도시로 기억합니다. 학회 가기 전 이곳저곳을 둘러보리라는 계획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와 쌀쌀한 바람으로 그레이트 오션로드를 둘러보는 것으로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도시', '남반구의 유럽', '플랫화이트의 진한 커피 향' 이 말들에서 느껴지듯 멸끔한 차림으로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뒤론 온몸에 페인트 가득 묻힌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맥주를 마시고, 묵직한 중압감이 느껴지는 유럽풍 건물 뒤로는 고층빌딩이 수두룩 펼쳐지며, 강이 흘렀고, 정원도 있고 걸음걸음마다 풍경이 달라지는 퍼즐 같은 멜버른의 매력에 일주일의 지내는 동안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국제 해외학회 참석이 처음이었고 혼자 방문하는 것이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큰 규모의 학회답게 많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어 안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학회는 총 5일 동안 진행되었고, Opening Plenary, Poster Viewing Session, Research Session, Special Session, Symposium 등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의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Research Session을 선택하여 들어가고 싶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참여하고 싶어지는 연구들이 많을 만큼 다양한 영역의 연구를

볼 수 있는 큰 학회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 학회 시작 전 Pre-Conference로 ELNEC(End of 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 한국에 와서 ELNEC Trainer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search Session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던 부분은 암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측정도구에 관한 것이었고 참여했던 Session에서 윤이 종게도 논문에 적용하고 싶은 도구를 알게 되어 발표하셨던 교수님께 허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학회 안내 책자의 저명한 간호학자와 여러 Session에서 발표하시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보이는 그 참신함과 여유로움이 아직 선택과 고민, 좌절 속에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그런 모습들이 자극이 되었고 나에게도 그런 단계가 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시그마학회는 초록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참여했던 다른 학회에 초록을 내는 것보다 여러 단계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원을 받아 부담을 덜었지만 비싼 학회 등록비는 살짝 참여를 망설이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규모가 큰 학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자극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학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조금은 더 간호학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올해 다시 참석하게 되는 시그마학회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소식 06

대학원생 이야기 ② -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생 수기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05졸 하지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부 05학번 졸업생, 석박통합과정 14학번 졸업생 하지연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는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간호대학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싣는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로부터 연락받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앞서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가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 동기와 후배들에게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과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3월에 석박통합과정(성인간호 전공)으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졸업하였고, 그 해 3월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문 인력의 조기 양성, 박사학위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빠른 박사학위 취득의 길을 열어준다는 석박통합과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4년 만의 졸업이었으나 석박통합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석박통합과정 특성상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시험 이전에 선수논문(부논문)을 완성하여 저널에 투고해야 하는데 석사학위논문 작성 및 심사 등 일련의 트레이닝 과정 없이 바로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와 노력,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대학원 생활을 하였던 석박통합과정의 동료분들도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현재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이론'으로만 배웠던 경험 부족한 저를 입학 3학기 만에 저널에 투고하게끔 이끌어주신 박연환 지도교수님께 이 졸업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부끄러운 논문 초안이었는데

보완해주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만큼 감사한 마음도 큼니다. 지도교수님의 세심한 지도가 아니었다면 졸업은 요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제로서의 남다른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본 과정을 시작하신다면 석박통합의 취지에 맞는 빠른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니 한 번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사학위를 진행하는 동안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 뜻깊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특히 요지 1차 심사를 마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습니다. 2017년은 박사학위 취득과 출산, 교수 임용이라는 제 일생에 소중한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해로, 또한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논문을 위한 자료수집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을 계속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컸지만 그때마다 지도교수님과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심사과정 중인 저를 위하여 출산휴가를 받아 육아를 도왔고, 출산으로 인하여 스케줄 조정이 불가피하였던 저를 위해 지도교수님 이하 탁성희, 고진강, 최희승, 정성희 심사위원분들께도 양해해주시고, 부족했던 논문 초안을 애써 다듬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준비에도 늘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양분이 되어 학위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비록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지금의 제가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르침 잊지 않고 저 또한 많은 후배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향기로운 교수자로, 학자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 엄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창회 소식 01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

10월 11일 오전 9시 관악캠퍼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본부에서 진행하는 기념식에 졸업 30, 40, 50, 60년을 맞이한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간호학생들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우정원과 신축예정 간호대학 캠퍼스부지를 둘러보았다. 동문들은 캠퍼스투어를 하며 발전한 모습에 감탄하며 자랑스러워했다.

이후 간호대학으로 옮겨 동창회에서 마련한 뷔페로 점심식사를 하며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졸업 60주년 동문 10명이 멋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선후배들의 만남은 더욱 애뜻하고 반가웠다.

오후 2시부터 간호대학 강당에서 학장의 축하인사와 동창회장 환영사로 모교방문행사를 시작하였다. 간호대학과 동창회에서 학교발전을 위해 기부한 기부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먼저 60주년 대표가 인사말을 하였다. 50, 40, 30주년 대표는 동영상 통해 대학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으로

전달하여 감동을 주었고, 동문들의 자부심도 한층 북돋아주었다. 앞으로의 멋진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설렘도 안겨주었다.



동창회 소식 02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겸 가족친목 행사

10월 21일 오전부터 화창한 날씨에 단풍이 곱게 물든 관악캠퍼스에서 총동창회 홈커밍데이가 있었다. 임난영 동창회장과 이윤경 전 동창회장(현재 총동창회 부회장), 78줄 동기 10여명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방경숙 차기학장과 조성현 상임이사 및 외국에서 온 조덕희, 김주환, 전영희 동문과 뒤늦게 흥을 한아름 안고 참석한 허영 동문, 따뜻한 커피 향을 갖고 온 신계영 이사, 가족이 함께 참석한 98줄 동문까지 대가족으로 뭉쳤다.

간호대학 선후배는 한자리에 모여 행사 내내 주최 측으로부터 호응상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겹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도 참석할 것을 약속하며 10월의 멋진 가을을 기억하며 헤어졌다.



동창회 소식 03

재학생 패널수업

10월 2일 오후 4시 간호대학 1학년 '간호학 개론' 수업시간에 패널수업을 하였다. 임난영 동창회장, 신순애(87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실장, 오지은(04졸) 법무법인 서호 변호사가 강의를 하였다.

간호학에 갓 입문한 학생들에게 간호의 우월성과 간호직의 이해 및 전망 등에 대한 내용, 졸업 후 임상경험의 중요성, 간호계 리더로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원리와 이론에 근거한 간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의 후 10여 명의 학생들은 강사들과 개인면담을 하며 유익한 정보를 나누었다.



동창회 소식 04

신년인사회

1월 4일 오후 4시 간호대학 강당에서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1부는 임난영(71졸) 동창회장이 행복하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여 동창회가 동문이면 누구나 쉬어갈수 있는 따뜻한 모임이 되길 소망하며 덕담과 함께 신년사를 하였다. 내용이 더욱 알차진 동창회보를 발간하였고, 재학생 패럴수업과 동창회의 동기지부활동지원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표했다.

새로 취임한 방경숙(85졸)학장의 취임사와 함께 간호학과의 관악진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힘을 쏟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포부로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학장 취임 꽃다발 증정식에 이어서 유숙자 전 동창회장, 이소우 명예교수 및 각 기관, 특히 지방에서 온 동문과 참석한 모든 동문들의 근황과 동문 소식을 전하며 선후배간의 화기에애한 덕담이 이어졌다. 기념촬영 후 다과를 함께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동창회 소식 05

동문동정

- 정영선(89졸)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 신순애(87졸) 급여 2선임실장겸 건강관리실장 승진
- 최원희(88졸) 심평원 혁신연구센터장
- 최금희(97졸) 급여정보개발단 급여정보분석부장(2급) 승진
- 임은옥(89졸) 미국 듀크대 간호대 부학장
- 김현의(93졸) 미국 듀크대 교수

동창회 소식 06

동창회교육연구재단19학년도 1학기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교육연구재단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 동창회 장학금 690만원을 모교 학부와 대학원 재학생 10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창회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내역〉

장학금명	학년	성명	장학금액
임영숙(70졸)장학금	학부	이예진	40만원
57년 졸업동기회장학금	학부	백경희	40만원
강신자(63졸)장학금	학부	최지성	40만원
김현희(63졸)장학금	학부	김채연	100만원
84년 졸업동기회장학금	학부	김드림	100만원
임난영(71졸)장학금	학부	박화목	100만원
백월랑(63졸)장학금	석박통합(박사)	조주현	50만원
김기주(70졸)장학금	석박통합(박사)	박은태	60만원
신정희(79졸)장학금	석박통합(박사)	안정희	60만원
이송희(50졸)장학금	박사	나성실	100만원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18년 9월 1일~2019년 2월 28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 6회 국내 동문	간호대 6회 미국 동문	간호대 58년 졸업생 일동	간호대학 78년 졸업 동기
간호대학 88년 졸업 동기	간호대학 교수협의회	간호대학 미주출연금	강자현
김다은(2011졸)	김씨래	김영아(88졸)	김향
박광훈	박달이	박연환	박은영
박인숙	박현애	신미강자	유순애
윤순녕	윤주영	윤효정	이경숙
이남주	이인숙	장선주	전수진
정현명	채선미	최스미	최지미
최희승	탁성희	한혜숙	황보영

기타	
삼화왕관(주)	서울의대간호대학창단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우리 간호대학은 2023년 관악캠퍼스 간호대학 건립을 목표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00136 서울대발전기금
신한 100-014-328209 서울대발전기금
우리 1006-601-280134 서울대발전기금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880-8004)